

아침세평

박병진

금구초 교장·교육학박사



운동장에 하얀 먼지가 일던 날들이 있었다. 청군과 백군으로 나뉜 목이 터져라 응원하던 아이들. 그늘막 아래에서 김밥과 과일을 나누던 학부모들. 이어달리기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을 통과할 때의 함성. 한때 초등학교 운동회는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마을 전체가 함께하는 지역 문화축제였다.

학교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었고, 운동회는 그 공동체가 가장 생생하게 드러나는 날이었다. 운동장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이어주는 만남의 장이었고, 아이들의 웃음과 어른들의 정이 자연스럽게 섞이던 자리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운동회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다. 마을 축제의 성격은 점차 약해지고, 대신 계주와 각종 스포츠 경기 중심의 '체육대회'로 재편됐다. 이후에는 다시 변화가 일어났다. 경쟁 중심의 대규모 체육대회에 대한 부담과 안전 문제, 그리고 교육적 가치에 대한 고민이 더해지면서 학년별 소체육대회로 축소되기 시작했다. 전교생이 한날 한시에 모이는 대신, 학년 단위로 나눠 비교적 간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준비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그리고 지금, 많은 학교에서는 전문업체가 진행하는 놀

운동회와 소풍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형 프로그램으로 운동회가 대체되고 있다. 아이들은 점수를 따기 위해 경쟁하기보다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고, 협동 놀이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참여한다.

소풍 또한 비슷한 흐름 속에서 변화해 왔다. 예전의 소풍은 자연 속으로 떠나는 하루였다. 도시락을 들고 산이나 공원으로 가서 돛자리를 펴고 앉아 수건돌리거나 보물 찾기를 하던 기억은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따뜻하게 남아 있다. 친구들과 어깨를 맞대고 앉아 나눠 먹던 김밥 한 줄, 자유롭게 뛰어놀던 시간은 교실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하지만 소풍은 점차 '현장체험학습'이라는 이름으로 바꼈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장소를 직접 찾아가 보고, 역사와 과학, 문화를 몸으로 경험하는 교육적 활동으로 재구성된 것이다.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학습의 연장선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학생들은 박물관과 과학관, 문화유산 현장을 방문하며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와 연결 짓는 경험을 하게 됐다.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 학교가 주도하는 단체 체험학습은 점차 줄어들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학습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체험의 주체가 학교에서 가정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는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을 위해 보통 1년에 2주 이상의 시간을 허용하고 있다.

개별 가정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경험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경험을 공유하던 기회가 줄어든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코로나 때문도

아니고, 체험학습 나갔던 버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때문도 아니다. 변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는 늘 변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할 것이다. 변화는 때로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그 방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개는 더 안전하고, 더 포용적이며, 더 교육적인 쪽을 향하고 있다.

운동회와 소풍의 변화도 결국은 진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의 방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던 가치가 새로운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때 교실을 가득 채웠던 흰 먼지의 백목 분말은 사라졌고, 물질을 거쳐 이제는 전자칠탐판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수업은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학습 자료는 종이를 넘어 화면 속으로 이동하고 있다.

아이들이 배우는 방식, 교사가 가르치는 방식 모두가 달라지고 있다. 운동회와 소풍의 변화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버스를 타고 설레는 마음으로 떠난던 현장체험학습, 운동장에서 왁자지껄 뛰놀며 먼지를 일으키던 하루, 학부모와 교사가 한데 어울려 웃고 응원하던 장면들은 이제 점점 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단체로 이동하며 느끼던 설렘, 친구들과 함께하는 집단 경험은 개인화된 활동으로는 완전히 대체되기 어려운 가치이기도 하다. 그래서 많은 교사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이해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아쉬움을 품게 된다. 나도 그렇다. 다만 학교는 늘 그랬듯, 앞으로도 조금씩 더 나은 방향을 향해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또 다른 추억이 만들어질 것이다.

기고

전중호

광주전남지방방무청장



소통과 협업으로 다져지는 국가안보

무를 수행하지만, 유사시에는 전혀 다른 역할을 맡게 된다.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교부를 비롯해 병력 이동을 위한 차량 지원, 급식 준비, 현장 질서 유지 등 다양한 병무 행정을 수행하며 군과 민을 잇는 안보의 실패할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교부는 병력동원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다. 아무리 정교한 계획이 수립됐더라도, 이를 실제 병력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모든 준비는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신속하고 정확한 통지서 전달은 곧 전시 대응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시 대응 능력을 실현하려면 점검하는 대표적인 훈련이 바로 '총무훈련'이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전시 상황을 가정해 병력동원 체계를 실제와 같이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훈련 기간 동안 지자체 병무담당 공무원들은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교부라는 핵심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예비군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고 입영을 독려하는 전 과정은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대비한 실전 훈련이다.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행정 처리 능력이 아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정확한 대상자를 찾아내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며, 돌발 변수까지 관리하는 종합적인 현장 대응 능력이 필요하다. 결국 이러한 경험의 축적이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결정짓게 된다.

광주전남지방방무청은 이러한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올해 3월 여수시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광주·전남 27개 지자체 병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년도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병무담당 공무원들이 실제 병무행정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병력동원훈련소집 참관, 병력판정검사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올해는 총무훈련과 연계해 실무 중심 교육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통지서 교부 실습, 병력동원훈련소집 인도인접 참관 등 보다 현실감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시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고,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자성이 '동심공제(同心共濟)'는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는 이 말은 국가 안보 체계의 본질을 정확히 담고 있다.

국가 방위는 특정 기관이나 조직만의 몫이 아니다. 병무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 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우리 곁에서 묵묵히 전시 업무를 익히고 준비하는 지자체 병무담당자들의 노고에 깊은 신뢰와 응원을 보낸다. 11월의 총무훈련이 안보 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들의 땀방울이 모여 대한민국의 평화가 지속될 수 있음을 우리 국민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취재수첩

5월의 숨결 가슴으로 느껴보자

송태영

사회부 차장대우



올해도 어김없이 5월이 다가왔다. 제46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주말인 16~17일 기념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을 집중 배치했다.

16일 오후 4시부터 5시18분까지는 1980년 당시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시민들의 가두행진을 재현한 '민주평화대행진'이 진행된다.

행진에 참여하는 참가자 2000여명은 광주역과 광주

고등학교, 북동성당 등 3개 지점에서 출발한 뒤 5·18민주광장으로 집결한다.

올해 처음 마련된 '런(RUN) 5·18. 도청 가는 길'은 전남대에서 출발해 금남로와 5·18민주광장까지 5.18km를 달리는 참여형 행사다. 이를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긴다.

17일 오후 5시18분부터 7시까지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전야제는 마당극 기법을 활용해 사회자 1인 진행 방식이 아닌 배우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대성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정치 중심 구성에서 벗어나 대중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2023년 8월부터 복원 공사가 시작된 옛 전남도청은 2년5개월 간의 공사를 거쳐 5월18일 정식 문을 연

다. 옛 전남도청은 1980년 당시 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복원되며 광주의 상징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제 5·18은 더 이상 광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2024년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 시민들은 맨몸으로 저항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으며, 위기의 순간에 발현되는 빛으로서 5·18이 오늘을 살리는 가치임을 다시 확인했다. 이에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28일 서울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어 정치권의 결단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지난날의 고통을 기리고, 미래를 위한 교훈을 찾는 5·18 46주년을 맞는 올해, 또다시 그 역사 앞에 서겠다.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것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금남로에 모인 시민 덕분이다. 다양한 행사 참여로 1980년 5월 군부독재에 맞선 광주 시민들의 그날의 시간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염원과 민주주의의 미래를 상상하면 어떨까.

사설

중동리스크에 취약한 지역산업...대책은

미국·이스라엘-이란간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리스크'가 현재 광주·전남 지역경제 전반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광주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광주정책포커스 제29호 '미국-이란 전쟁의 지역경제 영향'에는 중동 정세 불안이 지역 산업과 민생에 미친 결과 등이 나와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월 발생한 미국-이란 간 전쟁이 흐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어지면서 중동산 원유 수출이 약 60% 급감했고 국제유가는 치솟았다.

이는 곧바로 에너지·물류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3고 국면이 더욱 심화돼 광주와 전남의 생활물가는 각각 2.2%, 2.5%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20% 상승할 경우를 가정한 분석도 내놓았다.

이 경우 광주·전남 에너지 산업이 1.2% 감소하고, 가공조립업 0.64%, 기초소재 0.59%, 모빌리티 0.38%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소비자물가는 0.33% 상승하고 실질 소비는 0.6% 감소해 단기간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경기 후퇴·실업 증가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번 '중동발 리스크'로 유럽·중동 수출 비중이 높고 해상 운송 의존도가 큰 지역 산업구조의 취약성까지 드러난 데다 내수 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실질 소비 회복까지는 향후 5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저물류·저내수·저성장'의 3저 흐름으로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다는 데 있다고 한다.

해상운임 상승과 공급망 차질로 인한 기업의 리스크가 소비심리 위축과 투자 둔화와 맞물리면서 성장동력 자체를 약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용 지원 중심의 단기 처방보다는 공급망 안정과 산업 고도화, 친환경 에너지 중심 산업 재편 등 중·장기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광주·전남도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이번 사태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회복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때다.

전남 농림어가 고통화 심각하네...

광주·전남 농가의 고통화가 위험 수준이다. 고통화 속도가 전국 평균을 웃돌며 빠르게 진행돼 농촌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를 보면 그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전남 농가는 15만4432가구(28만6728명)로 지난 2020년 13만6972가구(28만 60명)에서 각각 12.7%, 2.4% 증가했다. 이는 경북(18만9213가구)에 이어 전국 2위 규모로 전국 농가의 12.4%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 임가도 2020년 1만4230가구(3만256명)에서 지난해 1만6406가구(3만1357명)로 각각 15.3%, 3.6% 늘었다. 이 기간 광주 농가와 임가도 크게 증가했다.

다만, 전남 어가는 2020년 1만5574가구에서 지난해 1만5447가구로 0.8% 감소하고 어가인구도 3만5357명에서 3만1092명으로 12.1% 줄었다.

문제는 광주·전남 농·임업 종사자 중 고통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전남 농가 인구중 65세 이상은 16만1869명으로 전체의 56.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국 농가인구 고통화율(51.3%)을 웃돌고 있고 전체 인구 고통화율(20.3%)의 2.8배에 이르는 수치다.

전남 임가도 전체의 51.6%인 1만6183명이 65세 이상이었고 어가도 43.3%가 고통층이었다. 광주 농가도 고통층이 41.4%였다.

농·임·어업 경영주도 고통화 추세다. 농가 경영주의 경우 평균 연령이 67.7세이고 경영주 10명 중 8명이 60대 이상(78.8%)인데다 70대 이상도 44.1%나 됐다. 어업 경영주 평균 연령은 65.4세, 임업은 66.5세였다.

이들 산업이 노동 의존도가 높은 산업인만큼 종사자의 고통화는 단순한 인구 문제를 넘어 생산 효율 저하와 기술 전승 단절, 경영 지속성 약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고통층 종사자의 소득·복지 안정, 청년·외국인 유입, 스마트 농·어업 확산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Gwangnam Daily, including phone numbers and addresses for various departments.